

국어사전 편찬 정책 및 그 역사*

허재영**

I. 머리말

1) 연구 목적

사전은 언어 항목인 표제어와 그에 대한 뜻풀이를 제시하는 기본적인 틀로 이루어진다. 사전에 올라 있는 언어 정보는 그 사회에서 일반화된 공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이 담당하는 기능은 규범적인 차원이나 지식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언어학을 살펴볼 때, 사전 편찬에 대한 관심은 매우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 편찬은 사전 편찬의 주체나 이용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사전 편찬은 어문 정책의 중요한 분야임과 동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년도 기초학문육성지원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중 점연구분야 한국근현대연구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Ⅱ)’에 의하여 이루어졌음(KRF-2004-073-AM2033). 이 논문 발표에 토론을 맡아주시고, 좋은 의견을 함께 해주신 경기대 박형익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시에 국어교육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된다.

이 글은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속에서, 사전 편찬 정책의 변화를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사전 편찬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은 사전 편찬의 역사를 고려할 때, 전통적인 사전 편찬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전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에서 출판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 편찬 과정이나 비용 면에서 개인적 차원보다 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가급적 충실한 데이터 작성을 우선시한다. 구체적으로는 1) 근대 계몽기 이후 편찬된 사전 목록 작성, 2) 사전 편찬을 위한 연구사, 3) 사전 편찬을 위한 어휘 수집 자료 등을 엑셀을 사용하여 DB로 구축하였다. 이를 좀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계몽기 이후의 편찬된 사전 목록은 180여 개이다. 이 자료는 박형익(2004, 2005)를 바탕으로, 앞선 연구 및 글쓴이가 수집한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것이다¹⁾. 이 자료에는 자전으로 불리는 옥편, 대역사전, 신어, 속담, 백과사전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 순수한 국어사전류는 대사전 17종, 고어사전 11종, 학습용 소사전 20종이 포함되어 있다²⁾.

-
- 1) 사전 편찬 역사를 고려하여 목록을 작성한 예로는 박형익(2004, 2005)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DB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의 자전류, 특수어 사전 등은 충실히 포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량적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 이 점에서, 이 DB는 빠른 시일 내 수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 2) DB구축 과정에서 사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다른 논란거리로 남는다. 이 점에서 박형익(2004)에서는 사전의 종류를 형태, 기술에 사용된 언어, 전달 정

그 가운데 단체나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한 사전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1947~1957, 이하 큰사전),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의 단체에서 편찬한 사전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전 편찬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의 어문 규범 문제를 고려하여 시대를 구분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이 세 가지 사전을 중심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사전 편찬 연구사이다. 이 자료는 근대 계몽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잡지, 학술지, 학술서 등을 조사하여 DB에 수록하였다. 그 결과 사전 편찬과 관련된 글은 모두 154편이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연도, 주요 내용, 성격, 대상 언어 등을 고려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사전 편찬 연구가 시대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사전 편찬이 어휘 재료 수집, 올림말 선정과 배열, 구체적인 정보 및 체재 등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어휘 재료 수집과 관련된 자료를 DB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국어사전의 경우, <말모이>, 전국 각 지역의 말, 특수어(지명, 인명, 관용어, 신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나, 그 작업 또한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큰사전 편찬과 함께 진행된 『한글』의 어휘 자료만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DB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어문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전 편찬 정책과 어문 통일 이후의 큰사전 편찬, 큰사전 이후의 사전 편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정부 차원의 사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보, 질적 기준, 양적 기준을 고려하여 정리해야 하고, 그 가운데 언어사전의 경우는 언어학적 기준과 표제항 기술 방법을 고려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판권이나 수정본을 확인하여 같은 항목에 기술할 것인지 여부, 특정 사전이 어느 한 유형에만 속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사전 DB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초 DB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지는 않는다. 이러한 작업은 좀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논의할 과제로 남겨둔다.

을 모색하도록 한다.

3) 앞선 연구

근대 계몽기 이후 사전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1880년대이다³⁾. 이 시기의 사전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목적으로 편찬된 대역사전류이다. 그 이후 1890년대 ‘언문 옥편’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최초로 사전 편찬이 시도된 경우가 주시경의 『말모이』(1911년부터 시작, 1916년 경)이다. 그러나 사전 편찬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은 1929년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일로 보인다⁴⁾. 이 때부터 사전 편찬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정인승, 1936), 어휘 배열 순서 문제(최현배, 1936) 등이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사전 편찬 연구는 어휘 재료, 어휘 배열 순서, 사전 속의 정보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큰사전(1957)이 완간될 때까지 이러한 문제는 사전 편찬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사전 편찬 연구는 주석, 어휘 배열, 문법적인 사항 처리 등이 중심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역사적인 면에서는 홍운표(1986), 이병근(1986), 조재수(1986) 등이 있었고, 홍재성(1987)에서는 문법 처리 방식을, 심재기(1987), 이기동(1987) 등에서는 주석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사전

3) 사전 편찬의 역사는 이병근(2000) 제1부, 박형익(2004)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4) 사전 편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시기가 1890년대라고 하여, 그것을 연구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형식안』(1913)이나 『조선어사전원고』(1917)를 연구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사전 편찬을 위한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연구사라고 부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편찬 실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조재수(1987), 정재도(1992)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92년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과 금성출판사의 『국어대사전』이 나오면서 사전 편찬의 역사는 큰 전환점을 맞기 시작한다. 더욱이 1990년대 사전 편찬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사전 편찬이 학문적 차원으로 발전하여, ‘사전학’, 또는 ‘사전 편찬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전 편찬에서도 말뭉치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과학적인 사전 편찬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연세대학교 사전편찬회에서는 『사전편찬학 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 편찬과 관련된 연구가 급속히 팽창하는 이유는 사전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점도 있겠지만, 사전 편찬 기술이나 재정적인 요건 등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에서 어문 정책이나 어문 교육 정책적인 면에서 사전 편찬 정책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보인다.

2. 어문 통일과 사전 편찬 정책

1) 어문 통일과 사전의 관계

사전은 “일정한 언어적 항목을 표제항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필요충분한 음운·문법·의미상의 정보를 압축시켜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표제항 중심의 사전적 조항을 이루고서 그 표제항들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체계화시킨 하나의 텍스트”를 말한다(이병근, 1990: 554). 따라서 사전은 일정한 언어적 항목인 울림말(표제항), 울림말에 대한 정보, 이들이 일

정한 순서로 배열된 구조를 갖는다. 홍재성(1987), 이병근(1990)에서는 이렇게 배열된 텍스트의 구조를 ‘거시구조라 부르고, 각 표제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미시구조’라 불렀다.

사전의 구조는 사전 편찬의 목적, 언어적 지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더욱이 거시구조는 표제항이나 하위 표제항의 성격과 배열 등이 편찬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형익(2004)에서는 사전의 종류를 나눌 때, ① 형태(종이사전, 전자사전), ② 기술에 사용된 언어(단어사전, 대역사전-이중어 사전, 다중어 사전), ③ 전달할 정보(언어사전, 백과사전), ④ 질적 기준(일반 사전, 특수 사전), ⑤ 양적 기준(확장형 사전, 선별형 사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적용된 기준들은 사전 편찬자들의 목적이 반영된 것들로, 사전의 거시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또한 박형익(2004)에서는 언어사전의 경우 ① 언어학적 기준(철자사전, 발음 사전, 파생어 사전, 동의어 사전, 반의어 사전 등), ② 표제항의 정보 기술 방법(통시적 사전, 공시적 사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 바 있는데, 이러한 기준들은 미시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거시구조가 올림말을 선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면, 미시구조는 올림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언어사전에서 올림말 선정은 단어 경계, 표기, 어휘의 상관관계(동의, 유의, 반의 등)에 대한 기준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어문 규범화는 사전 편찬의 필수 요건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전 편찬의 역사를 고려할 때, 근대 계몽기 초기 외국인에 의해 편찬된 각종 대역사전류는 이와 같은 규범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사전류는 한국어 표제항, 발음, 서양말의 풀이로 이루어진 경우가 일반적이며, 올림말 배열이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사전류는 어휘집의 성격이 강하며, 그 결과 올림말

의 단위가 단어뿐만 아니라 관용구가 올라 있는 경우도 있다.

최초의 국어사전으로 알려져 있는 『말모이』는 앞선 대역사전에 비하여 좀더 체계화된 국어사전으로 평가받는다. 이 원고는 ‘ㄱ’부터 ‘갈죽’까지만 남아 있는데, ‘알기’의 6개 항목에서 사전으로서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병근(2000: 83-134)에서 비교적 자세히 논의되었듯이, 이 원고는 사전으로서 표제어 배열 순서, 동의어에 관한 것,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에 관한 것, 음의 고저에 관한 것을 ‘알기’에 두었으며, 어법 분류의 기준으로 형태·음운론적 기준 및 전문 용어를 고려하였다. 이처럼 『말모이』가 사전으로서 좀더 체계적인 모습을 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의 국어연구 및 어문 규범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격적인 국어사전의 편찬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이하 사전편찬회)’가 결성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조선총독부 주관 『조선어사전』(1920)이나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 등은 특별한 목적 아래 편찬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병근(2000)에서는 전자를 ‘일제 식민 통치를 위한 사전’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박형익(2004)에서 처음으로 다룬 후자의 경우는 ‘보통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편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위원회’ 사업은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되었다. 왜냐 하면 사전 편찬에서 어문 규범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전과 어문 규범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말모이』의 체재가 근대계몽기의 국어연구 및 ‘국문연구안’의 주시경과 그 후학들의 이론을 주로 반영하였다면, 조선총독부(1920)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심의린(1925)에서는 ‘한글을 적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박형익(2004: 141)에 옮겨져 있는 심의린(1925)의 ‘자서’이다.

- (1) 몇해前까지도 우리말을 우리글로 못쓰고, 漢文의힘만 빌어서 使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漢文에對하여야는, 어느地方의 누구를 勿論하고, 古文句와 文法이一定하였으나, 우리글을 쓰는데對하여야는, 地方을 잘 아 달고, 사람을 잘 아 달너서, 도모지統一이 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 近年에와서는 우리朝鮮文을 研究하시는先生님들도 만이생기고, 教科書亦是 現時代に 適當하도록 編纂이되어서, 우리들은 매우 기뻐하는 바을시다. 그런데 아직까지라도, 漢文만 崇拜하는 慣習이 남아서, 우리朝鮮文을 그다지 所重하게너이지안는사람이 往往잇는 까닭에 글쓰는法이 다各各 다를썬더러, 몰으는이가 적지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그것을, 엇지하면 곳치고 엇지하면 一定케하겠슴넋가. 아마 基礎教育되는 普通學校時代부터 確實한말과 確實한글을 똑바로 배워야할것입니다. 그러나 學校에서 배호는 時間은 얼마아니되고 家庭에서 指導하여야주시는 어른도 만치못하니 不可不 自習의힘이나 바랄수밖에 업는대 아직까지는 必要한 辭典갖은 것이 업슴으로 恒常遺憾으로 生覺하였습니다...(이하 생략)

(1)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사전 편찬의 목적은 ‘기초교육으로서 조선어를 자습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문 통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어문 규범화가 사전 편찬 작업에서 기초가 된다는 점은 ‘사전편찬회’가 조직된 이후로 더 절실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조선어학회에서는 사전 편찬 작업을 위하여, ‘한글마춤법통일안(이하 통일안)’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통일안은 총론과 각론 제7장,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래어’는 각론의 제6장에서, ‘표준어’는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 이처럼 어문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⁵⁾에서 사전 편찬이 본격적으로

5) 어문 통일 정책 및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한글학회(1970), 고영근(1998)을 비롯한 많은 연구가 있다. 글쓴이는 이들 자료를 엑셀을 활용한 DB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근현대민족어문교육 기초연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시기 조선어학회의 기관지인 『한글』에 비교적 많은 자료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이운재(1936, 4-2 : 괄호 속의 두 번째 숫자는 『한글』의 권호수), 조선어학회(1936, 4-2, 4-4), 안재홍(1936, 4-5), 정인승(1936, 4-7), 이극로(1936, 4-7), 김윤경(1936, 4-7), 최현배(1936, 4-7), 일기자(1937, 5-10), 신영철(1937, 5-1), 이극로(1937, 5-7) 등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정인승(1936: 4-7)에서는 ‘사전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사전 편찬에는 기초 공사로 네 가지 작업과 실무 공사로 세 가지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정인승(1936)에서 제시한 사전 편찬 작업

ㄱ. 기초 공사 네 가지

- 어재 수집에 관한 문제 : 전문어 사전, 고어 사전, 신어 사전, 표준어 사전, 방언 사전, 어원 사전, 외래어 사전 등
- 표준어 사정에 관한 문제
- 철자법 통일에 관한 문제
- 어사의 분류에 관한 문제

ㄴ. 실무 공사 세 가지 문제

- 어의 주해에 관한 문제
- 어사 배열에 관한 문제
- 편찬의 제재에 관한 문제

(2)에 따르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철자법 통일, 표준어 사정, 어사 분류 등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범이 존재 여부는 사전 편찬의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전 편찬 정책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2) 어문 통일 이전의 사전 편찬 정책

어문 통일이 사전 편찬의 기초 공사가 된다는 점은 근대 계몽기 국어 연구의 흐름 속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주시경(1897)의 ‘국문론’이다.

- (3) 주시경의 ‘국문론’, 『독립신문』1897.9.25.(‘주상호’라는 이름으로 발표)
...조선 말노 문법 책을 정밀하게 문드어서 남녀간에 글을 볼 때에도 그 글의 뜻을 분명히 알아보고 글을 지을 때에도 법식에 맞고 남이 알아보기에 쉽고 문리와 경계가 북게 짓도록 골으쳐야 하겠고 쓰는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문드러라 홀지라 옥편을 문드자면 각식 말의 글즈들을 다 모으고 글즈들마다 음을 분명하게 표호여야 홀 터인 디 그 놓고 나즌 음의 글즈에 표를 각기 하자면 음이 놓흔 글즈는 덤 하나를 치고 음이 나즌 글즈에는 덤을 치지 말고 덤이 업는 것으로 표를 삼아 옥편을 씌일 것 갓하면 누구던지 글을 짓거나 책을 보 거다가 무슴 말의 음이 분명치 못흔 곳이 잇는 때에는 옥편문 펴고 보면 환하게 알지라...

주시경의 ‘국문론’에는 사전 편찬의 필요성과 원칙이 나타나 있는 셈인데, ‘뜻을 분명하게 알아보고, 법식에 맞게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사전(옥편)이 필요한 이유이다⁶⁾. 이러한 옥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자들마다 음을 분명하게 표해야 한다’는 것인데, ‘뜻’과 ‘법식’과 ‘문리와 경계’, ‘음표시’ 등과 관련된 언급은 사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6)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시경(1910), 『국어문법』에서도 “우리 나라 말을 바르게 쓰어 좋은 글이 되게하고자하시는 이들과 우리 나라 말의 자전을 만들고자하시는 이들에게 감히 이 글을 들이노니”라는 구절이 들어 있어, 문법 연구와 사전 편찬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주시경은 국문동식회를 조직하였으며, 그의 후학들과 함께 조선 광문회의 『말모이』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말모이』의 편찬 과정이 어떠한지를 정책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알기’에 실려 있는 내용에서도 어문 규범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이는 사전 편찬의 전제가 되는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편찬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실제로 ‘표준어’에 대한 인식은 근대 계몽기로부터 시작되며, 구체적인 규범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에서부터이다⁷⁾. 그러나 『말모이』의 편찬이 주시경 생전부터 시작되었고(1911년 추정), 조선총독부의 어문 규범이 <국문의정안>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문 규범화와 사전 편찬이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한다.

조선총독부의 사전 편찬 정책은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병근(2000: 192~225)에 따르면, 1911년 4월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처음 편찬이 시작되어 1920년 3월에 간행된 사전이, 『조선어사전』이다. 이 사전은 처음 1,000부가 인쇄되어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전 편찬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가, 일반인들에게 발매하면서 오다(小田幹治郎)의 ‘조선어사전 편찬의 경과’를 붙여 그 경위를 대략적으로 밝혔다⁸⁾.

7) 표준어 인식 과정에 대해서는 허재영(2003)을 참고할 수 있다. 1900년대 주시경의 문법서에는 ‘속어와 학술어’의 구분, 『만세보』 1909년 9월 30일자 방언 자료 기록 등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국문의정안>에는 이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의 철자법 대체의 방침에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을 밝힌 바 있다.

8) 이 사전의 영인본은 1975년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경과’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같은 해 일반인에게 발매한 자료는 ‘경과’가 들어 있다. 또한 1974년 일본의 국서관행회에서 이를 다시 간행하였는데, 이 때에는 고노로쿠로(河野六郎)의 서문이 들어 있다. 이 판본은 1984년 현대사에서 영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선어사전』 편찬과 관련된 자료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남아 있는데, 1912년 작성된 『사서편찬과 서류철』, 1913년 작성된 『사서편찬과 서류철』, 1915년 작성된 『사서편찬과 서류철』, 1916년 작성된 『사서편찬과 서류철』, 1918년 작성된 『사서편찬과 서류철』, 『사전편찬사무일지』, 『사전편찬에 관한 서류철』, 『조선사서원고』(등사본), 『조

이병근(2000: 199)에서는 이 사전의 편찬이 조선의 구관·제도를 조사하는 사업의 하나로 들어 있었으며, ‘국문해득자와 일본문 해득자를 위해’ 그리고 ‘조선의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의 편의를 위해’ 이 사업을 전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조선어사전』 편찬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어문정책의 표본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편찬 과정에서, 1917년 말까지 『조선사서초고(朝鮮辭書草稿)』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어휘 자료의 수집에 해당한다. 또한 사서초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1913~1914년 사이에 5회에 걸친 ‘조선사서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위원회에서 어휘 주석 및 한자음 처리 방식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919년 10월 인쇄가 시작된 『조선어사전』은 총어수 58,639어로 한자어 40,734어, 언문어 17,178어, 이두 727어로 구성되어 있다.

『말모이』와 『조선어사전』이 단체나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사전임에 비해, 심의린(1925)는 개인이 만든 사전이다¹⁰⁾. 따라서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정책적으로 다룰 것은 없으나, 사전 편찬 과정에서 규범과의 관련성은 ‘자서’에 드러난 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시기의 각종 어휘 자료의 수집이나 어휘집의 출현도 사전 편찬 작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경성부조선어연구회(이 연구회는 ‘조선어학회’와는 전혀 다른 단체임)의 『월간잡지 조선어』(1923~1929까지 모두 39호가 발행됨)에 실려 있는 후지나미(藤波衣官)의 ‘중소리’나 이윤희의 ‘한문성구’ 등은 어휘 자료로서의 의미와 함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

선어사전원고』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규장각소장어문학자료』(2000, 태학사), 이병근(200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9)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어문정책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보급’, ‘일본인을 대상으로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할 목적에서 수행된 조선어 장려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04a)를 참고할 수 있다.

10) 이 사전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박형익(2004)에서 구체적으로 밝혔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피한다.

보급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후지나미의 ‘중소리’는 비록 경성 부조선어연구회 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졌지만, 의성어·의태어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했다는 점에서, 특수어 사전 편찬 가능성을 열어 둔 사례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어문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국어사전 편찬 정책은 일부 단체가 관여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식민 시대라는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체계적인 사전 편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국어사전 편찬이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 정책과 맞물리면서, 한국어-일본어 대역사전 형태의 사전이 출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 <개정철자법>(1921)이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이 시기 개인적 차원에서 편찬된 심의린(1925)이나, 백과사전으로 출판된 송완식(1928) 등이 이 규정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3) 어문 통일 이후 사전 정책의 변화

1929년 사전편찬회의 조직¹¹⁾은 어문 통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게 하였다. 어문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근대 계몽기 이후부터이나, 사전 편찬 사업은 규범화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1933년 <한글미춤법통일안>의 제정 공포는 사전 편찬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전편찬회의 활동은 비록 정부 차원의 어문 정책은 아니지만, 단체 차원의 어문 문제 해결 과정에 속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면과 유사한 성격

11) 사전편찬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한글학회(1970)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한다. 또한 이극로(1932)에서는 조선어 통일 기관으로 ‘조선어학회’와 ‘사전편찬회’의 기능을 설명한 바 있으며, 조선어학회(1936), 『한글』 제4권 제4호에서는 사전편찬회 사업이 조선어학회로 이관되는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을 지낸다. 더욱이 이 편찬회의 활동 내용이 1936년 조선어학회에 이관되면서부터는 조직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글학회(1970)에서는 큰사전 편찬과 관련된 활동을 다음과 같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4) 큰사전 편찬 관련 시대 구분

- ㄱ. 큰사전 편찬 사업의 준비기(1929~1935) : 사전편찬회 조직
- ㄴ. 큰사전 편찬의 실무 제1기(1936~1945) : 일제의 탄압 시대
- ㄷ. 큰사전 편찬의 실무 제2기(1945~1950) : 광복 후 6·25 사변까지
- ㄹ. 큰사전 편찬의 실무 제3기(1951~1957) : 한글파동과 사전 완성

이와 같이 큰사전은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루어진 방대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정인승(1957)의 ‘큰사전 편찬을 마치고’를 고려할 때, 큰사전 초고가 완성된 시점은 1942년경으로 보인다. 이 회고담에서는, ‘1929년 사전편찬회 조직 → 1936년 조선어학회로의 업무 이관 → 1940년 왜정으로부터 최초의 출판 허가 → 1942년 총수 20만 매에 가까운 카드의 초벌 주석이 이루어지고 박문출판사의 특별한 호의를 얻어 인쇄에 관한 각종 활자 준비와 자재 분비를 갖추고 200여 쪽의 초판 교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1942년 박문출판사의 초판 인쇄 교정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초판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까지 어휘 자료 수집과 분류, 주석 작업이 완성 단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큰사전 제1권이 출판된 시점이 1947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942년 완성본과 1947년 출판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인승(1936)에서 제시한 기초 공사와 실무 공사는 조선어학회의 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휘 자료의 수집과 관련하여, 조선어학회의 기관지인 『한글』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이 이루어낼 수 없는 작업이므로,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나 민중들의 힘을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관지 『한글』에서는 ‘시골말’이나 ‘조선말 지명’란을 두고, 전국 각지의 어휘 자료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32년 『한글』 제1권 제1호가 발행된 뒤부터 1947년 큰사전 제1권이 발행되기까지 어휘 자료를 제공해 준 논문, 자료 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어휘 자료 관련 논문 및 자료의 분포¹²⁾

어휘 분류	자료	논문	계
방언(표준어)	127	16	143
지명과 인명	58	1	56
특수어(상징어, 전문용어, 관용어 등)	116	9	125
고어(문헌자료 포함)	48	12	60
어원	22	3	25
외래어	11	9	11
한자어	7	6	9
말다듬기, 문헌, 가로쓰기, 교육자료 등	82		22
계	471	56	527

(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휘 자료의 수집¹³⁾은 사전 편찬의

-
- 12) 이 표의 숫자는 자료 편수를 의미한다. 연재물의 경우 연재 횟수만큼 통계로 잡았으며, 게재량과는 상관없이 작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호성,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어휘 조사’의 경우 14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14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연재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글』에 어휘 자료를 보내준 사람들의 범위가 매우 넓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13) 이 통계표에 나와 있는 어휘 자료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사전식으로 배열된 어휘 자료의 경우 양적인 면에서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정리 방법도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분석에서 논의할 대상으로

밀결음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이 시기 최현배(1936)은 시골에 흩어져 있는 말을 채집하는 방법을 『시골말캐기 잡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것이다. 이 책자가 보급된 이후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시골말’은 이 분류 체계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고어, 외래어, 신어, 속담 등의 어휘 재료 채취는 광복 직후의 각종 고어사전류 출판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속담 사전이나 전문어 사전의 출판을 가능하게 한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어휘 재료를 어떻게 분류하고, 주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시기의 국어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 점에서 이극로(1936)에서는 단어의 경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고, 김윤경(1936)에서는 철자법을, 최현배(1936)에서는 어휘 배열 순서를 연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전 편찬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비용 문제이다. 이 점에서 큰사전의 편찬 비용은 사회 각층의 유지들의 도움을 받거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전편찬회를 인수하면서는 유지제라는 사람이 많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개인 차원의 사전 편찬 업적도 나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문세영(1938)¹⁴⁾이다. 이 사전은 국어사전으로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사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달리 말해, 심의린(1925)와 같은 학습용 사전이 아니라, 일반 국어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사전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전이 편찬되기까지 어휘 수집 및 분류에 대한 자세한 과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시기 조선일보사의 특파기자 명으로 된 기사가 『조광』 제4-9호(1938)에 실려 있으며, 방중현(1938)에서의 사전 연대기 작성에서도 이 사전을 비교적 큰 비중으로

남겨둔다.

14) 이 사전 편찬의 경과나 가치에 대해서도 앞선 연구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병근(2000), 박형익(2004)를 참고할 수 있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복 직후의 사전 편찬은 양적으로 매우 풍성해졌다. 특히 국어사전류 가운데 고어사전의 출판이 두드러졌는데, 정태진·김병제(1947), 이상춘(1949), 정희준(1949) 등이 그것이다. 또한 학습용 사전의 출판도 활발하였으며, 표준말 사전, 속어 사전 등이 나왔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전이 출판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조선어학회의 어휘 재료 수집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큰사전 이후의 사전 편찬

큰사전 이후에 편찬된 사전으로는 국어국문학회(1958), 『국어 새 사전』(동아출판사), 신기철·신용철(1958), 『표준 국어사전』(을유문화사), 한글학회(1958), 『중사전』(정음사), 홍용선·김민수(1959), 『새사전』(대한교과서주식회사), 한글학회(1960), 『소사전』(정음사), 이희승(1961), 『국어대사전』(민중서관) 등이 이어서 출판되었다. 또한 고어사전으로 남광우(1960), 『고어사전』(동아출판사),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연세대학교출판부), 장지영·장세경(1976), 『이두사전』(정음사), 전규태(1976), 『고어 이두사전』(삼양출판사) 등이 출판되었으며, 학생용 소사전류도 다수 출판되었다.

이와 같이 사전 편찬이 활발해진 배경은 사전 편찬의 경험 축적과 사회-경제적 변화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시기의 사전류는 확장형 사전과 선별형 사전으로 분화되는 성향이 뚜렷했다. 달리 말해 확장형 사전이란, 중요한 종합 용어와 익히 쓰이는 관용어구들도 모두 수용한 총체적인 언어사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확장형 사전은 큰사전 이후의 대사전류가 취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 점에서 정재도(1999)와 같이, 사전의 올림말 수만을 늘려 놓은 부피겨루기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전 편찬이 활발해짐과 함께, 기존의 사전에 대한 보유작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글학회의 경우 1967년부터 '보유작업'을 시작하였는데, 1980년부터는 국고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우리말 큰사전』을 어문각에서 다시 발행할 수 있었다. 이 판본은 43만여 어휘를 수록한 사전으로, 국어사전의 면모를 중시하면서 인명, 지명과 같은 백과사전식 요소를 줄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출판된 확장형 국어사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⁵⁾.

(6) 1970~1990년대 초의 주요 확장형 국어사전

사전	연도	편저자	표제어 수	특성
새우리말 큰사전	1974/1984	신기철 · 신용철	31만 표제어	백과사전식
수정증보판 국어대사전	1982/1994	이희승 편저	42만 표제어	백과사전식이나 각종 전문사전의 역할을 함께 수행
동아 새국어사전	1990/1994	이기문 감수	15만 표제어	1988년 어문규범 최초 적용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1	김민수 외	40만 표제어	백과사전식, 어원 정보 충실
우리말 큰사전	1992	한글학회	43만 표제어	언어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고유명사를 가려 넣음, 한글맞춤법(1988)을 따르지 않음.(한글학회 규정을 따름)
조선말대사전	199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33만 표제어	규범사전의 성격을 함께 지님.

15) 이 표는 남길임(2005)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논문은 최근 30년 사이의 사전 편찬의 역사를 '말뭉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구분하였다. 곧 1990년대 이전에는 말뭉치가 존재하기 이전의 사전 편찬 시대였는데 비해, 컴퓨터의 등장과 말뭉치를 구축한 『연세한국어사전』(1998),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사전이라는 뜻이다.

(6)의 사전류는 백과사전적인 특성을 강조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언어사전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도 있다. 또한 표제어가 전 시대에 비해 늘어난 점도 사전 편찬 경험 축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전문 용어 사전, 방언 사전, 속담 사전, 비속어 사전, 상징어 사전, 구문 사전 등이 만들어진 점도 사전 편찬의 역사에서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사전 편찬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높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1980년대 이후부터는 ‘사전편찬학’이라는 용어가 학문 용어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3. 사전편찬학과 정부 차원의 사전 정책

1) 사전 편찬학

사전학, 또는 사전편찬학(lexicography)이란 엄밀히 말하면 ‘학문’이라기보다 ‘사전편찬 기술’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다(이상섭, 1990: 77). 곧 이 용어는 사전 편찬을 위한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실천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이상섭(1990)에서는 일본인이 즐겨 쓰는 ‘사전학’이라는 용어보다 ‘사전 편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편찬학이 실천적인 사전 편찬과 관련된 학문이라면, 사전학은 사전 문제 전반에 관한 학문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두 가지 용어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 편찬학의 발달은 사전 편찬의 역사를 거치면서 발달하여 왔다. 이상섭(1990)에서는 하트만의 사전편찬학을 소개하면서, 사전편찬학의 분야를 다섯 항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사전편찬학의 내용

- ㄱ. 사전편찬학은 한 언어(방언 포함)의 어휘를 기술, 설명하는 일을 한다.
- ㄴ. 사전 제작에 있어서 기본 단위는 어휘소, 즉 형태와 의미의 긴밀한 결합체이다.
- ㄷ. 사전은 한 언어의 전체 어휘를 기술하든가 또는 그것의 특수 양상들에 집중할 수 있다.
- ㄹ. 사전 제작은 정보를 다루고 제시하기 위하여, '메타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 ㅁ. 궁극적으로 모든 사전은 언어 사용자의 어휘적 필요에 따라 형성되고, 비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사전편찬학은 정인승(1936)의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 공사와 실무 공사라는 경험적 차원의 작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전편찬학의 발달은 기존의 국어사전 편찬과는 다른 사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남길임(200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국어사전 편찬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출판된 『연세한국어사전』(1998), 『표준국어대사전』(1999) 등은 사전편찬학의 성과와 말뭉치에 기댄 사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뭉치를 이용한 사전은 기존의 사전 편찬 방식과는 달리 사전 표제어 목록 선정이나 뜻풀이 등의 일차적 근거를 실제 언어 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에서 찾는다는 데 있다. 이는 사전 편찬자가 일일이 텍스트를 검증하여, 올림말을 찾아 내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 사전의 거시구조나 미시구조에서 큰 변화를 보일 수 있는데, 특히 말뭉치의 용도에 따라 사전 편찬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말뭉치를 이용한 『연세 초등국어사전』(2002),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말뭉치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한국어세계화재단 출간 예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연구원(現 국립국어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어사전의 역사, 각종 어휘 자료 정리의 역사를 비롯한 사전학적 연구 성과도 축적되었다¹⁶⁾. 특히 조재수(1984) 이후, 이병근(2000), 정재도(1999), 박형익(2004) 등은 사전학적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묶은 중요한 업적들로 평가된다.

2) 국가 차원의 사전 정책

1990년대 국가의 사전 정책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편찬의 주체로 정부 기관이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사전 편찬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민의 국어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정식 발족한 데 따른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1986년 외래어표기법이 개정되었고, 1988년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국어사전이 필요해졌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요인은 어문 정책이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본질적인 차원도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관광부의 신설은 국가

16) 이병근(1990)에서는 이 시기까지의 사전학적 연구 경향이 사전사 서술로부터 시작하여, 사전 편찬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1970년대까지의 사전 논의는 사전사를 제외하면, 사전학적 논의라기보다는 국어학적 논의에 가깝다고 하면서, 『국어생활』 제7호(국어연구소), 『사전편찬학연구』 1, 2 (연세대학교 한국어사전편찬회)가 나오면서부터 사전학적 논의가 활성화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0년대의 사전학은 사전편찬의 실무를 위한 사전 편찬학과 사전의 역사를 비롯한 사전 전반 문제를 다룬 사전학의 발달이 결실을 맺는 시기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의 어문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⁷⁾. 이에 대해 유목상(1990)에서는 문화관광부의 당면 과제로 ① 맞춤법 준용의 생활화, ② 표준어의 보급화, ③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통일, ④ 실용한자를 위한 사회 교육, ⑤ 한국어 대사전의 편찬 사업, ⑥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설의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어 대사전 편찬’은 문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2년 사전 편찬 사업이 10년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1994년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이 완간되었다. 이 사전은 남북한 언어 및 해외 동포의 언어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이 시기의 국어학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한 사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사전이라는 점도 기존의 국어대사전과는 차이를 보이는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사전은 어문규범의 변화를 반영한 규범사전임과 동시에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참조사전의 구실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전 정책의 앞날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 글은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를 속에서 사전 편찬 정책의 흐름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국어사전 편찬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글이다. 이를 위해 사전 편찬의 역사를 정리한 DB, 사전

17) 국가 차원에서 어문 연구 기관을 두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 사례는 근대 계몽기 ‘국문연구소’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이 점에서 문화관광부 신설 및 국가 차원의 사전 정책 실시는 프랑스의 ‘아카데미 사전 편찬’(1694년 첫판 발행, 1932년 제8판 개정),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 미국의 ‘웹스터 사전’ 편찬과 같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사전 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편찬 연구와 관련된 DB, 어휘 자료 수집과 관련된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사전 편찬 정책과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글쓴이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DB 구축 과정에서의 문제이다. DB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 자료를 충실하게 조사하고, 이를 사실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점에서 글쓴이가 구축한 DB에도 누락된 사전 및 연구 자료가 매우 많다. 이는 특히 신어 자료 및 1970년대 이후의 사전에서 두드러진다. 이 점에서 기초 자료 조사를 좀더 충실하게 하여, DB를 수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DB에 담길 정보이다. 글쓴이는 근현대민족어문 교육 기초 연구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틀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그 가운데 일부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항목 설정 과정에서 사전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적합한 항목 설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는 박형익(2004)에서 제시한, 사전 분류 기준과 자료 분류 기준을 고려한 새로운 항목 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DB의 항목 수정도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은 단시일 내에 이루기는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수정된 DB를 제시하는 것은 또다른 과제로 남겨둔다.

이와 같은 한계를 전제로 이 글에서 논의한 우리의 사전 편찬사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어문 통일 이전의 국어사전 편찬 : 우리의 사전 편찬은 근대 계몽기 외국인에 의한 대역사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역사전으로 일제 강점기 『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이 있었으며, 이는 식민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어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말모이』 편찬이 있었으며, 심의린(1925)와 같은 학습용 사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 (2) 1929년 사전편찬회가 조직된 이후, 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 통일 문제가 시급해졌으며, 그 결과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이 만들어졌다. 이 통일안에는 외래어와 표준어 규정이 함께 들어 있다. 그 이후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 사전편찬회 사업을 이어받아, 큰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글』에 다양한 어휘 자료 수집 노력이 나타난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 직후에는 고어사전, 속담사전과 같은 다양한 사전이 편찬될 수 있었으며, 1957년 큰사전이 완간되었다.
- (3) 큰사전 이후의 사전 편찬은 다양한 확장형 국어사전과 선별형 전문사전 편찬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의 축적은 1980년대 중반부터 사전편찬학이라는 학문의 발달을 가져왔다.
- (4) 사전학, 또는 사전편찬학의 발달과 컴퓨터를 이용한 말뭉치 구축은 사전 편찬의 역사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말뭉치는 사전 편찬자가 일일이 텍스트를 찾아 표제어를 찾는 작업 대신 실제 언어 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텍스트를 말뭉치로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어 정보화의 흐름을 반영한다.
- (5)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1990년대 문화관광부의 설립과 국립국어연구원의 사전 편찬 작업은 국가의 사전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사전 편찬이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만 진행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어정보화의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가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어사전 정책은 좋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사전편찬학의 발달을 전제로 하며, 이는 말뭉치 구축, 사전의 문법 기술 방법, 풍부한 용례 제시, 전자 사전으로서의 체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학문적 체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5. 5. 30. 투고되었으며, 6. 11. 심사가 시작되어, 6. 17. 심사가 종료되었음.

[주제어] 사전편찬학, 말뭉치, 사전 편찬, 사전 편집, 한글맞춤법

참고 문헌

- 남길임(2006), 「사전 편찬 연구사」, 『제21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말연구학회.
-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 박형익(2004), 「한국어 사전 편찬의 역사」, 『제20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한말연구학회.
- 유목상(1990), 「문화국민을 위한 어문정책을 생각한다」, 『국어생활』 제20호, 1990. 봄, 국어연구소.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정재도(1999), 『국어사전 바로잡기』, 한글학회 한글재단.
- 조재수(1984), 『국어 사전 편찬론-붙임 자료편』, 과학사.
- 한글학회(1970), 『한글학회 50년사』, 한글학회.
- 허만길(1994), 『한국 현대 국어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 허재영(2003), 근대계몽기 이후의 국어연구가 한글맞춤법에 미친 영향, 『겨레어 문학』 제31집, 겨레어문학회.
- 허재영(2004a), 『일제강점기 일본어 보급 정책 자료』, 역락.
- 허재영(2004b),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한국어) 교육, 『한말연구』 제14집, 한말연구학회.

** 그 밖의 참고문헌 자료는 학진 지원 근현대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Ⅱ의 DB 1, 2, 3에 제시하였음.

■ Abstract

The Policy of Korean Dictionary and Lexicography

Heo, Jae Young

This study aims to describe and explain the policy of Korean dictionary and lexicography. Lexicography is the writing and making of dictionaries. Korean dictionary was appeared in modern recent times. These dictionaries were translation printed side by side with the original text. These dictionaries were published by foreigner in foreign countries.

The history of Korean dictionaries were difficult and complex. In 1920, the government of colonial published THE DICTIONARY OF CHOSEON LANGUAGE (조선어사전). The purpose of this dictionary was investigation and domination of Choseon people.

The work of dictionary is composed of various steps. First, we need the law of language that is called HANGEUL MACHUMBEOP(orthography), standard of Korean vocabulary etc. These problems must be solved by government. But in the colonial period, the government were not interested in these problems. In 1933, these problems were solved by the CHOSEON-EOHAKHOI(the Korean language Research Society). Second, we collect the language materials and analyze these corpus. The research society collected various dialects, archaic words and common saying etc. We can find these material in HANGEUL(the magazine of the society). In 1942, the society were intended to publish Korean dictionary. But the dictionaries did not published because the colonial government did not allow. But these works

influenced many dictionaries that were about standard Korean, ancient language and special language.

In 1957, the Korean dictionaries were published by the HANGEUL-HAKHOL. The dictionary was named as WOORIMAL-KHUNSAJEON(It means the large scale Korean dictionary). But the lexicography were not developed during the modern times. In 1992, the Korean Language Research published The Dictionary of Standard Korean. This dictionary is important of the history of Korean dictionary, because the government are concerned with the work of dictionary.

Today, the editing of dictionary is regard as important of language policy and the lexicography is based on these processes. The corpus are not constructed by one or two person, so the government should be concerned theses problems.

[Key Word] lexicography, corpus, publishing of dictionary, editing of dictionary, orthography